

초등학교 보건교사의 역할적응 과정: 자기자리 만들어 가기

이정희¹ · 이병숙²

¹금사초등학교, ²계명대학교 간호대학

Role Adaptation Process of Elementary School Health Teachers: Establishing Their Own Positions

Lee, Jeong Hee¹ · Lee, Byoung Sook²

¹Kumsa Elementary School, Busan

²College of Nursing, Keimyung University, Daegu,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and identify patterns from the phenomenon of the role adaptation process in elementary school health teachers and finally, suggest a model to describe the process. **Methods:** Grounded theory methodology and focus group interviews were used. Data were collected from 24 participants of four focus groups. The questions used were about their experience of role adaptation including situational contexts and interactional coping strategies. Transcribed data and field notes were analyzed with continuous comparative analysis. **Results:** The core category was 'establishing their own positions', an interactional coping strategy. The phenomenon identified by participants was confusion and wandering in their role performance. Influencing contexts were unclear beliefs for their role as health teachers and non-supportive job environments. The result of the adaptation process was consolidation of their positions. Pride as health teachers and social recognition and supports intervened to produce that result. The process had three stages; entry, growth, and maturity. **Conclusion:** The role adaptation process of elementary school health teachers can be explained as establishing, strengthening and consolidating their own positions.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fundamental information for developing programs to support the role adaptation of health teachers.

Key words: Elementary, School nursing, Role, Adaptation, Qualitative research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 고시에 의거, 보건 교과목이 신설되고 체계적인 보건교육이 실시되게 되면서 보건교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보건교사의 자격은 초·중등교육법에 의거 간호사 자격과 교원 자

격을 동시에 갖추어야 취득 가능하다[1]. 대부분의 보건교사는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중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임용 시험을 거쳐 학교 현장에 배치되고 있는데, 실제로 충남지역의 경우는 74.6%의 보건교사가 임용되기 전, 임상간호사로 근무했던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2]. 한편, 학교와 병원은 그 조직 환경과 업무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간호사로 근무했던 사람이 보건교사라는 새로운 역할을 시작할 때에는 이에 대한 적응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어: 초등학교, 보건교사, 역할, 적응, 질적 연구

*이 논문은 제1저자 이정희의 박사학위논문을 수정하여 작성한 것임.

*This manuscript is a revision of the first author's doctoral dissertation from Keimyung University.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Lee, Byoung Sook

College of Nursing, Keimyung University, 1095 Dalgubul-daero Dalseo-gu, Daegu 704-701, Korea

Tel: +82-53-580-3900 Fax: +82-53-580-3916 E-mail: lbs@kmu.ac.kr

Received: April 4, 2014 Revised: April 16, 2014 Accepted: May 28, 2014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Derivs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d/4.0>)

If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and retained without any modification or reproduction, it can be used and re-distributed in any format and medium.

보건교사는 신규임용 후 새로운 역할에의 적응을 돕기 위해 각 시도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30시간에서 62시간의 신규임용 예비자 직무연수를 받게 되는데[3], 이는 일반교사와 동일하다. 그러나 일선 학교로 배치된 후로는 일반교사의 경우 교육청 장학사나 선임 교사로부터 적응을 돕기 위한 지원을 다시 받고 있는 반면, 보건교사의 경우 적응을 돕기 위한 현장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보건교사의 경우는 교육대학이라는 동일한 출신배경을 가진 구성원 속에서 스스로를 이방인으로 느끼는 소외감도 가지고 있어, 이들의 적응을 위한 현장 지원이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4]. 미국의 학교간호사는 교원 신분인 우리 보건교사와 그 상황에서 차이가 있지만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는데, 이들은 스스로를 학교 구성원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하고 있는 존재, 학교 사회에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정체모를 존재로까지 느끼고 있었다[5]. 초등학교 보건교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소외감과 자존감 저하는 생소한 환경과 역할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이에 대한 과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할 뿐 아니라, 역할 적응 지연이나 실패를 가져올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상황은 학교보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특히 초등학교 보건교사는 돌봄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는 경우 더욱 심각한 문제가 초래 될 수도 있다.

초등학교 보건교사의 역할적응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어떠한가, 그 어려움은 어떻게 극복되고 있는가, 그리고 여기에 어떤 상황과 중재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초등학교 보건교사의 역할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학교보건 활동 및 중재 활동에 관한 조사연구나 초등학생의 보건교사 역할에 대한 기대와 수행에 관한 연구들[6,7]을 찾을 수 있을 뿐, 이들의 역할적응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또한, 이들 대부분은 보건교사의 역할과 특정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탐색한 연구로서, 보건교사가 역할적응 과정에서 부딪히는 어려움과 상황적 맥락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용하는 전략 등에 대한 사실이 전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따라서, 초등학교 보건교사의 역할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역할적응과 관련된 요소 및 전략들을 이들의 생생한 경험 속에서 이들의 관점으로 도출하여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근거이론 방법론은 어떤 현상에 대한 인식과 의미는 다른 사람들과의 상징적 의사소통, 즉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며, 이러한 인식과 의미가 인간의 행동을 인도한다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8]. 따라서, 근거이론 방법론은 초등학교 보건교사의 역

할적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들의 행동 패턴과 역할적응을 위해 사용되는 상호작용 전략을 확인하고, 이 과정을 설명하는 실체이론을 구축하기 위해 적합한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초점집단 면접법은 조직적인 집단 면접법으로서 집단의 상호작용을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질적으로 우수한 자료를 모으는데 유용한 자료 수집 방법이다[9]. 이에 본 연구는 근거이론 방법론과 초점집단 면접법을 적용, 초등학교 보건교사가 경험하고 있는 역할적응 과정을 심층적으로 탐색하여 이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실체이론을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역할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 마련에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보건교사의 역할적응 과정과 이에 관련된 맥락 그리고 역할적응을 위한 상호작용 전략을 심층적, 포괄적으로 탐색하여 초등학교 보건교사의 역할적응 과정에 대한 실체이론을 구축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참여자 표집 방법으로는 초점집단 면접이 편안하고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참여자들이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람을 서로 추천하여 참여하도록 하는 스노우볼 표집법을 적용하였다. 초점집단은 집단에 따라 적응과정 경험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교사의 발달 단계를 1년은 생존단계, 2~4년은 적응단계, 5년 이상은 성숙 단계로 구분한 기준[10]과, 위숙한 교사가 되는데에는 15~20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한 지적[11]을 참고로 초등학교 보건교사 경력 2년 미만 집단 6명(집단 1), 2~5년 집단 6명(집단 2), 5~10년 집단 6명(집단 3) 그리고 10년 이상 집단 6명(집단 4)의 네 집단으로 구성하였다. 참여자는 총 24명으로 모두 여성이었으며 연령은 만 26세에서 54세까지 분포하였고 평균 연령은 36세였다. 참여자의 보건교사 임용 전 임상실무 경력은 최소 4개월에서 최고 7년까지 분포하였고, 평균 임상경력은 2년 8개월이었다. 교직 경력은 1년 6개월에서 24년 2개월까지 분포하였고, 평균 8년 1개월이었다. 최종 학력은 전문학사 2명, 학사 21명, 석사 3명이었고, 종교는 기독교 8명, 천주교 6명, 불교 6명, 무교 4명이었으며 결혼 상태는 미혼이 6명, 기혼이 18명이었다. 초점집단 참여자의 선정에 위한 기준은 자료 수집 당시 보건교사 근무경력 3개월 이상인 사람, 보건교사 임용 전 임상간호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고 적극적으로

로 기술해 줄 수 있는 사람, 연구의 목적과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사람이었다.

2. 자료 수집과 윤리적 고려

자료 수집은 일 대학병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IRB No. 11-156 07.05)을 거쳐 2011년 7월 7일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 약 2개월 동안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면담 전, 소개받은 참여자에게 연구 목적, 방법, 면담 내용 녹음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구두 동의를 받은 후 모임 장소와 날짜를 약속하였다. 자료 수집 당시에는 연구 목적과 방법을 다시 설명하고 대화의 녹음을 허락받은 후 수집된 내용은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겠으며,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또한, 참여자가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알린 후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배부하여 서명을 받았다. 면담 장소는 타인의 방해받지 않도록 일과 이후의 학교 보건실과 조용한 식당을 사용하였다. 면담 질문으로는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을 가장 잘 이끌어낼 수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주 질문: 보건교사가 된 직후부터 지금까지의 역할적응 과정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조 질문:

- 1) 보건교사가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 2) 보건교사로서의 역할적응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였으며, 어떻게 극복하였습니까?
- 3) 보건교사로서의 역할적응을 위해 도움이 된 것은 무엇이며 사용한 전략은 무엇입니까?
- 4) 보건교사로서의 역할적응에 성공 혹은 실패하였다고 생각되는 때는 어떠한 경우입니까?
- 5) 보건교사로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전과 비교하여 달라진 점은 무엇입니까?

초점집단 면담은 120~200분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평균 약 180분이 소요되었다. 면담 후에는 집단면담에서 미처 답하지 못했던 내용을 보충하거나 면담 중 의문이 있었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일부 참여자에 대한 면대면 면담과 전화 면담을 하여 자료를 보완하였다. 개별 면담 내용은 면대면인 경우 녹음을 하였으며, 전화 면담인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을 메모하였다. 토의가 진행되는 동안 연구자와 연구 보조자는 토의와 관련된 내용을 메모로 남겨 추후 면담 내용을 필사할 때 참고하였다. 녹음한 내용은 당일 컴퓨터에 워드 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입력하였고, 이 때 참여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참여자에 고유번호를 부여한 후 신원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삭제하였다.

3. 자료 분석

자료의 분석은 근거이론에서 제시한 방법[12]에 따라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순환적으로 시행하여 개방코딩, 연결코딩, 선택코딩, 도형화의 단계를 거쳐 분석하였다. 개방코딩에서는 전체 문서를 정독하여 대상자가 경험한 것을 이해한 후 문단 단위로 읽으면서 중심 의미를 찾아내어 면담자료 여백에 기록하고, 이를 다시 줄 단위로 분석하여 그 의미를 충분히 담고 있는 언어로 코드를 만들었다. 연결코딩에서는 코드를 비슷한 내용끼리 묶어 좀 더 추상화된 용어를 사용하여 하위범주로 형성하고, 다시 추상화의 단계를 거쳐 상위범주를 형성한 후, 이를 원인조건, 현상, 맥락, 매개요인, 작용/상호작용전략, 결과 등 근거이론 패러다임에 따라 재배치하였다. 선택코딩에서는 모든 범주를 통합하고, 자료를 전체적인 맥락으로 이해하여 연구현상에서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심리적 행동패턴을 찾아내어 핵심범주로 도출하였다. 도출된 핵심범주는 하위범주 및 상위범주와 연결하여 연구 현상의 전체적 윤곽을 찾고, 상호작용전략을 확인하여 이론적으로 진술하였다. 도형화에서는 지금까지 도출된 상위범주들을 핵심범주와 연결시키고 정형화하여 적용과정으로 재조직화 하였다.

4. 연구의 엄밀성 확보 및 연구자의 준비

본 연구에서는 질적연구의 평가기준[13]에 따라 신뢰성, 적합성, 감사가능성, 확인가능성을 기준으로 연구의 엄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신뢰성 확보를 위해 본 연구자는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연구자의 선입견을 방지(bracketing)하면서 경청하였다. 또한, 녹음된 면담 자료는 생생한 정보와 느낌을 잊지 않기 위해 면담 당일 필사하였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해석의 오류는 참여자의 의견을 다시 확인하여 수정하였다. 적합성은 참여자의 진술이 포화상태에 이를 때까지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확보하였다. 포화상태는 질적 연구 경험이 풍부한 간호학 교수 2명과 참여자 4명으로부터 확인하였다. 감사가능성은 구술 내용이 참여자의 의도대로 정리되었는지를 참여자 4명으로부터 확인받음으로써 확보하였다. 또한, 근거이론 방법론에 대한 연구경험이 풍부한 간호학 교수 3인에게 전체 자료 분석 과정에 대한 비평과 조언을 받음으로써 감사가능성을 확보하였다. 확인가능성은 연구자의 해석이나 분석을 독자가 검증할 수 있도록 참여자의 말을 직접 인용함으로써 확보하였다.

본 연구자들은 질적 연구 방법론을 수강함으로써 질적 연구에 대한 기초지식을 얻었고 질적 연구에 관한 세미나와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질적 연구를 위한 능력 함양에 힘써음으로써 수차례의 질적 연구를 수행하여 학술지에 발표한 바 있다. 또한, 본 연구자들은

초등학교 보건교사 및 간호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평소 초등학교 보건교사들의 적응 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이론적 민감성을 높일 수 있었다.

연구 결과

수집된 면담 자료를 지속적 비교분석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보건교사의 역할적응 과정은 22개의 하위범주와 7개의 범주로 설명할 수 있었으며, 이 범주들은 근거이론에서 확인하게 되는 현상, 맥락, 상호작용 전략, 중재적 상황, 결과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Table 1). 참여자들의 역할적응 과정을 발생시킨 원인 조건은 초등학교 보건교사로서의 새로운 역할 담당이었다. 참여자들은 보건교사로 임용되기 전 임상간호사로 근무했었기 때문에, 이들에 있어 보건교사로서의 임용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됨을 의미하였다. 참여자들이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현상은 초등학교 보건교사로서의 역할수행에 있어 혼란과 방황이었으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으로는 참여자의 내재적 맥락인 역할에 대한 불명확한 신념과 외재적 맥락인 비지지적 직무환경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역할수행에 있어서의 혼란과 방황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상호작용 전략을 사용하였는데, 이들 전략은 진입기, 성장기, 원숙기로 이어지는 역할적응 과정에 있어 자기자리 만들어 가기

라는 핵심범주로 종합할 수 있었다. 이를 포커스 그룹별로 살펴보면 보건교사 경력 2년 미만의 참여자로 구성된 집단 1은 진입기에 해당하여 주로 참고 견디기 전략을 사용하였고, 경력 2-5년의 참여자로 구성된 집단 2도 진입기에 해당하여 주로 살펴보고 분석하기 전략을 사용하였다. 경력 5-10년의 참여자로 구성된 집단 3은 성장기에 해당하여 적당한 선 유지하기,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돌파구 찾기 전략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경력 10년 이상인 참여자로 구성된 집단 4는 원숙기에 해당하여 내편 만들기, 능력 발휘하기 전략을 주로 사용하였으나 이상의 모든 전략을 상황에 맞게 활용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의 자기자리 만들어 가기에 영향을 미치는 중재 상황으로는 참여자 내재적 상황인 보건교사로서의 자부심과 외재적 상황인 사회적 인정 및 지지가 확인되었다. 참여자들은 자기자리 만들어 가기라는 전략을 통해 직무에의 몰입, 원하는 것의 획득, 학교 구성원들과의 협력적 공존의 세 영역으로 구성된 자기자리 굳힘이라는 결과에 도달하게 되었다(Figure 1). 본 연구에서 확인된 초등학교 보건교사의 역할적응 과정을 근거이론의 도식 영역에 따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현상: 역할수행에 있어 혼란과 방황

참여자들은 보건교사로 임용된 후 교육자로 다시 태어나는 기쁨을 가지고 이상적인 보건교사상을 그려보기도 하였으나 근무를 시

Table 1. Dimensions, Categories and Sub-categories of the Experiences of Role Adaptation Process in the Participants

Dimensions	Categories	Sub-categories
Phenomenon	Confusion and wandering in their role performance	Shock at unfamiliar culture of the school Confusion due to the different role expectations
Context	Internal context: Unclear beliefs about their roles of health teachers	Lack of preparation for the job Unestablished identity and beliefs as a teacher
	External context: Non-supportive job environments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colleagues about the expertise of health teachers Isolation as non-mainstream members Insufficient support system for role adaptation
Interactional coping strategies	Establishing their own positions*	Bearing and standing Observing and analyzing Keeping proper line Approaching actively Finding a way out Making friends Demonstrating capabilities
Interventional situation	Internal situation: Pride as health teachers	Fruitfulness as an educator Passion for the health professional work
	External situation: Social recognition and supports	Favorable job conditions and social recognition Support from other people Support from social networks
Results	Consolidation of their positions	Commitment on the job Attainment of the needs Collaborative coexistence with the colleagues

*Core categ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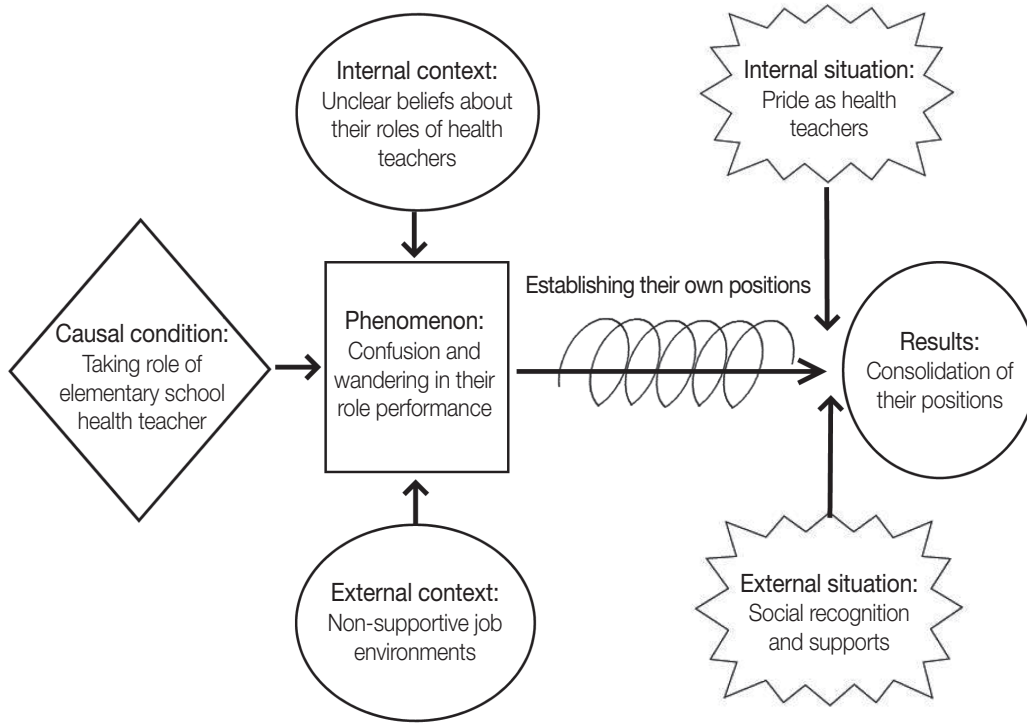


Figure 1. Role adaptation process of elementary school health teachers.

작하면서 병원과는 확연히 다른 초등학교 조직문화에 충격을 받게 되었다. 또한, 이들의 대부분은 신입 보건교사로서 상대적으로 업무가 많은 학교에 배치되면서 업무의 과중함과 함께 새로운 직무에 대한 버거움과 역량 부족을 경험하게 되었다.

처음엔 그냥 좋았어요. 원하던 시험에 합격해 보건교사가 되었으니 마냥 기쁘고 좋았죠. 정말 이젠 교사로서 다시 태어난다는 느낌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발령을 받고는, 업무를 익히고 할 틈도 없이 보건수업을 하고, 쉬는 시간에는 아이들을 치료하고, 또 틈을 내어 맡은 업무도 하면서 보건실 관리까지 해야 하니.....(그룹 1 참여자 1)

도대체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처리되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구요.(그룹 1 참여자 6)

내가 학교 간호사의 자리에 서야 할지 아니면 교사의 자리에 서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요.(그룹 1 참여자 3)

2. 맥락

1) 내재적 맥락: 역할에 대한 불명확한 신념

참여자들은 보건교사로의 임용 당시, 그 직무를 감당하기 위한

준비가 부족하였음과 함께 교육자로서의 가치관과 정체감이 형성되지 않았음을 토로하였다. 참여자들은 보건교사로 임용되기 위해 공부하며 준비했던 직무와 발령 이후 현실에서 맡게 된 직무 사이에서 큰 괴리감을 경험하였다. 특히, 2009년부터 초등학교 보건교사가 법에 정해진 시수의 수업을 실시하게 되면서 부터는 보건교사로서의 경력은 많지만 수업을 진행했던 경험이 적음에서 오는 자괴감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보건교사도 교사잖아요. 교사는 학생의 지도와 교육을 하는 것이 맞고, 또 그렇게 배웠는데, 시설관리나 단순행정 실무를 시키니까 황당했죠.(그룹 2 참여자 1)

이젠 정말 수업도 하고 수업공개도 해야 하는데, 교과서로 이렇게 정식 수업을 한 건(기간은) 얼마 안 되니까... 내가 경력이 많아도 수업할 때는 뭐... 신규 같았죠.(그룹 4 참여자 2)

2) 외재적 맥락: 비지지적 직무환경

참여자들은 보건교사로서 새로운 역할을 시작하면서 역할적응을 위한 제대로 된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들은 보건교사의 역할적응에 있어 비지지적 직무환경 요인으로 의료인으로서의 전문성에 대한 동료 교사들의 인식 부족, 비주류 구성원으로서의 고립된 관계, 그리고 미흡한 직무적응 지원시스템을 지

적하였다. 특히, 참여자들은 일반교사들과 달리 단순 행정업무를 맡아 하게 될 때 본인들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 자존감이 저하되기도 하였다. 참여자들 중에는 심각한 자존감 저하와 함께 위축감을 느끼면서 보건의교사를 선택한 것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고 이직까지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병원에서 직무적응을 위해 프리셉터의 지원을 받았던 기억과 일반교사에 대해서 교육청이나 학교 단위로 장학사 또는 멘토교사를 지정하여 적응을 지원하는 것을 보면서, 보건의교사인 자신들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고 토로하였다. 참여자들은 학교의 유일한 의료인이자 교사로서 어떤 지원도 없이 홀로 업무를 파악하고 응급 시에도 홀로 임상적 판단을 내려야 되는 현실에서 불안함을 느꼈다. 이들은 보건의교사를 위한 표준화된 업무지침의 부재, 보건의교사의 낮은 법적 지위와 배치율, 보건의 장학사 부재 등과 같은 제도적 측면의 지지체계 부족을 절감하고 있었다.

다른 선생님들은 모두 교대출신들이잖아요. 우리는 학교 안에서 교사라는 이름표를 같이 달고 있긴 하지만 어떤 불순물이나 이물질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룹 1 참여자 3)

보건의교사는 학교에서 평생 주인이 될 수 없다보니깐, 소수로서 배려해 주기 보다는 알게 모르게 일단 바닥에 깔고 시작한다는 느낌이 들죠. (그룹 3 참여자 1)

좀 심하게 다친 학생이라도 오면 응급처치를 해주는 것도, 병원에 의뢰하는 것도 혼자서 다 결정을 해야 하나까 불안하고, 조심스럽고 그래요. (그룹 1 참여자 3)

우리는 일선 현장에만 있는 존재이고 한 칸만 위로 올라가도 우리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한마디로 교육계 쪽에는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우리 편이 없는 거죠. (그룹 3 참여자 3)

학교에서 우리는 혼자 뚝 떨어져 있는 '섬'같은 존재라 외로워요. (그룹 2 참여자 1)

3. 상호작용 전략: 자기자리 만들어 가기

참여자들은 초등학교 보건의교사로 발령 받은 후 낮은 인식과 제한된 입지 조건 하에서 혼란과 방황을 경험하지만, 곧 자신이 자리 잡아야 할 곳은 바로 여기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에 참여자들은 학교 구성원으로부터 의료인이자 교육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인정받고 자신의 입지를 확립하기 위해 '자기자리 만들어 가기'에 들어

간다. 이때 참여자들은 여러 전략을 사용하는 데, 한 가지의 전략을 끝까지 고수하기 보다는 상황에 따라 다른 전략을 활용하거나, 둘 이상의 전략을 함께 활용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자기자리 만들어 가기는 참여자들이 초등학교 보건의교사로서 성공적인 적응에 이르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통합적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일단 우리가 주인도 아니고 하다보니까 누군가 우리 자리를 마련해 두고 우리를 맞이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곁가지에 붙어서 아무 말 없이 이리저리 따라다니는 느낌이었죠.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지낼 수는 없으니까 한 번씩 학교 안에서 목소리를 내보기도 하고, 때로는 뒤에서 조용하게 챙기기도 하구요. 우리 스스로가 자기 스타일에 맞는 자기 자리를 만들면서 같이 가는 거죠. (그룹 3 참여자 1)

참여자들이 자기자리 만들어 가기의 전략으로 사용하는 일곱 가지 행위/상호작용 전략의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참고 견디기

참여자들은 대부분이 교육대학 출신으로 구성된 초등학교 교사 사회에서 소수의 비주류 구성원으로서 고립감과 소외감 등의 심리적 어려움과 부당한 업무 배정 그리고 존중받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경우에도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참고 견디면서 어려움을 극복하려 하였다. 특히, 교직사회에서 한번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면 '꼬리표'라는 일종의 낙인이 찍히게 되는데, 이 '꼬리표'가 교직생활 내내 자신을 따라다니게 된다는 우려 때문에 어떤 의견을 내거나 부당함을 알리기보다는 참고 견디어 내는 쪽을 선택하고 있었다.

억울하고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참아야죠. (그룹 1 참여자 1)

꼬리표가 붙으니 함부로 대하거나, 불합리해도 웬만하면 큰 소리 내지 말고, 충돌 안하고 지내려 하지요... 울컥울컥 하지만 삭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룹 1 참여자 2)

2) 살펴보고 분석하기

참여자들은 보건의교사로 첫발을 내딛으면서 학교조직에서 어떻게 적응해 갈 것인가 하는 현실적인 고민에 부딪히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참여자들은 '살펴보고 분석하기'라는 전략을 구사하여 학교의 상황과 특성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특히, 국립 초등학교 보건의교사들의 경우는 정기적으로 학교를 옮기게 됨에

따라 새로운 학교에 발령을 받았을 때에도 이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학교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에서 나아가 학교 전체를 관망하여 큰 그림으로 분석해 보면서 또래뿐만 아니라 내편이 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등, 한 단계 발전된 살펴보고 분석하기의 전략을 구사하였다.

분위기를 살펴봐서 그 학교는 어떤지를 알아야 해요. 그래야 거스르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룹 2 참여자 5)

일단 처음에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면서 이 사람이 나랑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은 비슷한지, 내편인지 알아보려 하죠. (그룹 3 참여자 3)

3) 적당한 선 유지하기

학교 상황이나 동료에 대해 완전히 파악 하지 못한 경우, 참여자들은 동료 교사들과 다소 표면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적당한 선을 두고 학교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참여자들은 자신의 불만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거나 자신의 의견이나 속내를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상태에서 주변 사람들과 적당한 선을 유지하면서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다.

집에 가서 내 가족에게조차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왔는지, 뭐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병원 친구들을 만나면 나는 학교에서 곱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 말 않고 잠자코 있죠. (그룹 3 참여자 1)

우리 일이 좀 특수하다보니 내 할 일만 잘 하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지만, 그래도 학교 전체가 돌아가는 일에 너무 빠지지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나 몰라라 할 수도 없으니 나름대로 적당한 선을 정해서 쪽 가야죠. (그룹 4 참여자 2)

4)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참여자들은 임명 초기, 비교적 소극적으로 지내다가 평생직장으로 근무하기 위해선 학교에 있는 교직원들과 친밀해 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시도하였다. 참여자들이 동료 교직원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방법에는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기, 상대방의 이야기 잘 들어주기, 상대방에게 관심 보이기, 학교 행사나 교직원 활동에서 굿은일에 솔선수범하기 등이 있다.

내가 나이가 많긴 직진 간에 학교에서 누군가를 만나면 먼저

밝은 톤으로 인사를 해요. (그룹 3 참여자 2)

여선생님이 많으니까 의상이나 악세사리 같은 외모에 한마디씩 좋은 말을 해줘요. 또, 아프다던 아이의 상태는 어떤지 뭐 그런 이야기를 한마디씩 하면 좋아하시죠. (그룹 2 참여자 6)

5) 돌파구 찾기

참여자들은 초등학교 보건교사로서 역할수행 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자신이 원하는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는 좌절감을 나름대로의 돌파구를 찾아 해결하고 있었다. 이들은 돌파구로서 학교 밖의 삶에 몰두하거나, 더 이상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스스로 보호막을 치기도 하고, 처음 보건교사가 되고자 했던 이유들을 되새기면서 교사라는 직업의 장점을 찾아보기도 하였다.

학교 일에만 자꾸 매달리지 말고 돌파구를 찾아서 학교 밖에 다른 일에 몰두해요. (그룹 1 참여자 5)

이젠 더 이상 상처 받지 않으려고 스스로 보호막을 치죠. (그룹 3 참여자 4)

예전에는 왜 나를 같은 교사로 봐주지 않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지만 4-5년 지나면서 나 스스로 그래 나는 당신들과 같지 않다고 인정하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 졌어요. (그룹 3 참여자 1)

6) 내편 만들기

참여자들은 돌파구를 통해 일종의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보건교사로서 인정받기 위해 자신들을 지지해 줄 수 있는 동료집단을 만들어가는 보다 적극적인 전략을 구사하였다. 이들은 학교에서 유일한 의료인이라는 점을 최대한 활용, 건강문제에 관한 상담을 통해 동료교사들과의 친분을 두텁게 하고, 심정적으로 가까운 교사들과는 서로의 고충을 나누면서 보건교사의 상황을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지지자 인맥을 관리해 나가는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학교에서 마음 맞고 편한 사람들끼리, 우리 중에 누가 힘든 일이 있었다거나 하면 시간되는 사람들이 같이 가서 먹을 것도 같이 먹고, 위로해주기도 하고, 격려해주기도 하는데, 이젠 제가 나서서 이런 모임을 주도하기도 하죠. (그룹 4 참여자 2)

7) 능력 발휘하기

참여자들은 보건교사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기 위해 의료인이

자 교육자로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더욱 적극적인 전략을 구사하게 된다. 참여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강지식을 활용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해주거나, 일반교사들도 인정할 만한 건강관련 연구 학교나 선도학교를 주도적으로 운영하면서 보건교사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었다. 이러한 전략을 활용하는 참여자들은 업무와 관련해 부담함을 느낄 때에는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강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여 관철시키기도 하였다. 이들은 보건행정이나 교육행정 영역에서 보건교사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등, 동료 보건교사들을 이끄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학교에 누군가가 아파서 의견을 물어보면 전반적인 치료 과정을 알려주고 아는 병원이나 의료인이 있으면 연결도 시켜주고, 이렇게 관심을 좀 기울여주면 그 선생님하고는 더 친해지게 되요. 게다가 내 전문성도 드러낼 수 있어 좋아요. (그룹 3 참여자 1)

연구학교나 선도학교는 학교 전체의 사업이니까 아토피나 흡연예방 같은 걸로 선도학교를 하나 운영하고 나면 (보건교사를) 확 다르게 보기도 하죠. (그룹 4 참여자 2)

4. 중재적 상황

1) 내재적 중재 상황: 보건교사로서의 자부심

참여자들은 보건교사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실생활에 유익한 보건교육을 위해, 또한 교육자로서 전문성 확립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었다. 특히, 이들은 교육자로서 자신이 학생들의 장래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러한 보람이 보건교사라는 역할에 더욱 잘 적응하도록 만들고 있었다.

내가 손 씻기 수업을 하고나서 학생들이 화장실에서 배운 대로 손을 씻는 모습을 보니까, 이런 맛에 수업을 하는 구나 싶었어요. (그룹 3 참여자 5)

일을 하다보니까 내 처치를 받고 아이들이 고마워하면서 내 처치에 대해 인정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 또한 아이들에게 한 마디라도 더 건네고, 더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룹 3 참여자 3).

2) 외재적 중재 상황: 사회적 인정 및 지지

참여자들은 병원과 달리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교대근무를 하지 않는 점 그리고 교직에 대한 높은 사회적 인식이 보건교

사로서의 역할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진술하였다. 참여자들은 보건교사로서 새롭게 역할적응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족으로부터 심리적 지지와 함께 가사와 육아의 도움을 받고 있었으며, 학교 내에서도 다른 구성원들과의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들로 부터 큰 도움을 받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다양한 공식 또는 비공식적 활동을 통해 형성한 인맥을 통해 지지를 받고 있었는데, 특히 다른 보건교사들과는 단순한 협조 관계를 넘어 가족과 같은 끈끈한 친밀감을 형성하여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 주기도 하였다.

일단 교대근무를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제일 큰 장점이지요. 또,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구요. (그룹 1 참여자 4)

교사라고 하면 일단 좋게 보잖아요. 병원 안에서도 다른 곳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을 부러워하진 않는데, 보건교사는 다들 부러워하죠. (그룹 1 참여자 2)

우리 일이 여러 학년, 부서와 연결된 것이 많으니까.. 학교 안에서도 일단 인간적으로 친해지고 나면 일을 하기가 훨씬 수월해요. 또한, 보건교사 끼리는 뭔가 끈끈한 게 있어요. 전국 어느 학교 보건실에 전화를 해도 낯설지 않구요. 다른 학교 보건선생님들도 다 한 식구, 가족 같아요. (그룹 3 참여자 6)

5. 결과: 자기자리 굳힘

참여자들이 자기자리를 만들어 가기를 통해 도달한 성공적인 역할적응의 결과는 자기자리 굳힘이었다. 이 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직무에의 몰입

참여자들은 초등학교 보건교사로서 자리를 잡게 되면서 직무를 더욱 전문적,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들은 본인들이 구상했던 이상적인 보건교사, 즉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 응급처치, 그리고 탁월한 보건교육자로 인정받기 위해 직무에 몰입하였다. 이를 위해 참여자들은 다양한 자료를 찾아 보건실 업무와 수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활용하였고, 개인적으로도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이제 수업하고 응급처치 하는 것은 기본이죠. 어떻게 질적으로 더 잘하느냐가 문제니까요. 보건선생님이 하나까 뭐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좋은 자료를 찾아보기도 하고, 연수도 받고 대학원도 가서 개인적으로 공부도

하면서 하나라도 더 잘하려고 노력하게 되요. (그룹 4 참여자 5)

2) 원하는 것의 획득

참여자들은 그동안 속내를 감추고 침묵하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지내다 자리를 잡게 되면서, 의료전문가로서의 이미지를 확립해 가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획득하였다. 이 시기에 도달한 참여자는 학교 구성원들과의 유연한 관계 형성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바를 큰 무리 없이 획득하였다.

학교에서도 뭔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강하고 세게 나가는 것보다 조용하고 부드럽게... 나 혼자 햇볕 정책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잘 얻을 수 있게 해 주죠. (그룹 3 참여자 1)

3) 학교 구성원들과의 협력적 공존

참여자들은 다른 구성원들과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것이 학교 전체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도 중요함을 인식하게 되면서 자신이 가진 이질감과 소외감을 스스로 극복하고, 한 사람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공존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참여자들은 최대한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며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는 등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내 어려움에 대해서 크게 공감해 주지 않으면 서운한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더라구요. 일반 선생님들은 보건 업무를 한 번도 안해봤으니 어려움이 무엇인지 모르는 게 당연하다고요. (그룹 3 참여자 2)

저 사람은 왜 저러나... 그런 눈이 아니라 이젠 사람이 그냥 있는 그대로 봐지게 되더라구요. (그룹 4 참여자 6)

6. 초등학교 보건교사의 역할적응 과정

참여자들의 역할적응 과정은 진입기, 성장기, 원숙기의 단계로 진행되었다. 이 과정은 한 단계가 끝난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단층적 구조를 지니기 보다는 연속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단계가 겹쳐서 나타나거나 후퇴하는 양상을 보였다. 예를 들어 참여자들이 새로운 학교로 이동하거나 업무상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이전 단계로 후퇴하기도 하지만, 적응의 단계를 다시 거치면서 원숙기에 이르게 되어 보건교사로서의 역량이 확장되고 있었다. 또한, 참여자의 적응은 원숙기에 도달하였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경 변화에 따라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은 다음과 같다.

1) 진입기

이 단계는 초등학교 보건교사로서의 역할적응이 시작되는 시기로서 참여자들이 자신의 업무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자신의 역할에 대한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시각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주어지는 업무를 그때그때 처리해 나가기에 급급한 시기이다. 이 단계의 초기에 참여자들은 보건교사로서의 희망과 사기가 충만했던 밀월 시기를 잠시 경험하였으나, 곧 생소한 조직문화와 역할들에 직면하면서 엄청난 문화충격을 경험하였다. 이 단계에서 참여자들은 주로 살펴보고 분석하기와 참고 견디기 전략을 구사하였는데, 이는 학교 분위기나 교직원들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여기에 거스르지 않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참여자들은 많은 어려움을 참고 견디면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소극적인 전략을 구사하였다.

2) 성장기

이 단계는 반복되는 업무와 단순 행정업무에 대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서 시작된다. 이 시기에 참여자는 일반적인 업무수행 능력이 향상되어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아지고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의 양도 늘어나게 되었다. 학생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약간의 노하우가 생기고 보건수업에 대한 부담감이 다소 감소하였다. 참여자들은 학교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게 되면서 보건교사로서 자신의 업무에 대한 자각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자신이 꿈꾸었던 업무와 현실 사이에서 큰 괴리감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은 자신이 쏟는 에너지에 비해 받는 인정이 미약함을 느끼면서 경력이 쌓여 갈수록 보건교사로서의 비전은 멀어져 감을 경험하였다. 한편, 이 단계에서 참여자들은 진입기 때 보다는 다소 적극적인 전략을 사용하였다. 참여자들은 적극적으로 다가가기를 통해 학교 구성원들 속으로 파고들었는데, 여성이 다수인 초등학교 사회에서 먼저 인사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작은 변화에도 관심을 보여주는 것 등이 여기에 속한다. 하지만 비주류로서의 고립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한 참여자들은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전적인 공감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기에 쉽게 자신의 상황이나 속내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적당한 선을 유지하였다.

3) 원숙기

이 단계는 단순히 업무를 처리해 내는 수준을 넘어 의료인으로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더욱 효과적인 성과 향상을 위해 여러 방안을 시도를 해보는 등, 자신의 능력을 꽃피우는 시기이

다. 이 시기에 참여자들은 향상된 업무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업무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융통성을 발휘하는 등, 여유와 자신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면서, 보건실 운영 역시 학교의 전체적인 운영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전문 의료인으로서의 능력을 십분 발휘하여 직접 연구학교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보건교사회에서는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보건교사의 권익 향상과 고충 처리에 앞장 서는 등, 리더로서도 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이 시기에 들어 있는 참여자들은 보건교사로서 느끼는 한계나 갈등을 보건교사라는 직업의 일부부분으로 받아들이는 한편, 자신의 일에 더욱 몰입하여 전문성을 고취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굳히고 있었다.

논 의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초등학교 보건교사로서 역할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을 집약하는 핵심범주는 자기자리 만들어 가기로 확인되었다. 이는 참여자들이 낯선 환경과 생소한 업무 그리고 교육대학 출신들의 동질 집단에 가까운 초등학교 사회에 이방인 같이 들어가 보건교사로서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하기까지의 여정을 포괄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핵심범주는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다른 교과 교사와 달리 조언이나 인도해 줄 수 있는 선임자가 없는 상황에서 주로 시행착오를 통해 역할수행에 있어서의 혼란과 방향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초등학교 보건교사의 역할적응 과정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다. 초등학교 보건교사의 자기자리 만들어 가기는 신규 간호사 실무적응 경험의 중심현상인 궤도 진입하기[14]와 비교하여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신규 간호사는 비교적 잘 확립된 간호인력관리 시스템에 따라 정해진 궤도에 무난히 진입하게 되는 것과 달리 보건교사는 적절한 지원 시스템 없이 홀로 자신의 역할을 찾아 배워가면서 자기자리를 만들어 가는 것의 차이를 알 수 있었다.

참여자들이 있어 초등학교 보건교사로서의 역할수행 시 혼란과 방향에 영향을 준 요인은 이들의 내재적, 외재적 맥락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내재적 맥락으로는 역할에 대한 불명확한 신념, 외재적 맥락으로는 비지지적 직무환경이 확인되었다. 즉, 초등학교 보건교사로서의 직무를 위한 준비 부족과 아직 형성되지 못한 교육자로서의 가치관과 정체감 그리고 동료들로부터의 지지 부족과 신입보건교사의 직무적응을 위한 지원시스템 미흡은 참여자들의 역할수행에 있어 혼돈과 방향의 주요 요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보건교사가 임용되기 전 임상간호사로 일했던 사람임을 고려하여,

이들이 처음 임용될 때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오리엔테이션과 교육자로서의 정체감 형성을 위한 교육이 필수적임을 알려 준다. 선행 연구[15,16]에서 경력이 적은 보건교사의 직무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난 결과는 이들을 지지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체계적인 지지체계가 없었던 사실을 일부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초임 보건교사에 대해서는 임용 전 직무연수나 임용 후 교내, 외 선임자들의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참여자들은 초등학교 보건교사로서 자기자리를 만들어가면서 진입기, 성장기 및 원숙기의 단계를 지속적, 순환적으로 거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상호작용 전략으로는 참고 견디기, 살펴보고 분석하기, 적당한 선 유지하기,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돌파구 찾기, 내편 만들기, 능력 발휘하기가 있었다. 참여자들의 역할적응 과정 단계는 간호사의 전문가 역할 이론[17], 종합병원 수간호사의 역할적응 과정[18], 신규 간호사의 실무 적응 경험[14] 그리고 중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직 발달 단계[19]와 비교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초등학교 보건교사의 역할적응 진입기는 간호사에 있어 초보자 단계[17]와 중등학교 교사에 있어 생존 및 발견 단계[19]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 단계에 참여자들은 초등학교 보건교사라는 새로운 일 앞에서 다시 초보자가 되어 역할적응이라는 여정을 시작하였다. 이들은 보건교사로서 생존하기 위해 자신을 둘러싼 상황을 살피고 중요한 단서들을 발견해 갔다. 이 시기에 주로 구사하는 전략은 참고 견디기와 살펴보고 분석하기였는데, 이는 신입 수간호사에 있어 탐색하기, 헤쳐 나가기 전략[18]과 신규 간호사에 있어 헤매기, 부딪쳐가기[14] 전략과 유사한 점이 많다고 하겠다. 다만, 신규 간호사와 달리 초임 보건교사가 살펴보고 분석하기와 같은 보다 전문가다운 전략을 사용하는 것은 이들의 대부분이 간호사로서의 근무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 결과를 볼 때 진입기에 있는 초임 초등학교 보건교사에게는 구체적인 직무수행과 관련된 프로그램 적용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초등학교 보건교사의 역할적응 성장기는 간호사에 있어 진전된 초보자 및 적응자 단계[17]와 중등학교 교사에 있어 안정기 단계[19]와 유사하다. 이 단계에서 참여자들은 경험의 축적을 통해 안정적인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하고 있었으며 진입기에 가지고 있던 소외감에서 벗어나 보건교사로서의 자기자리를 만들어 가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이 시기에 참여자들이 주로 구사하는 전략은 적당한 선 유지하기,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돌파구 찾기로서, 이는 수간호사의 전략[18]인 다가가기, 신규 간호사의 전략[14]인 구성원 되어가기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학교 구성원들로부터 자신들의 고충을 전적으로 공감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들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지 못하고, 적당한

선을 유지하며 외부에서 돌파구를 찾으려하는 소극적인 모습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간호사들보다 더욱 다양한 상호작용 전략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장기에 있는 초등학교 보건교사에게는 학교 구성원들과 원활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대인관계 기술이 어느 시기보다 더욱 요구되므로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초등학교 보건교사의 역할적응 원숙기는 간호사에 있어 숙련기 및 전문가 단계[17]와 중등학교 교사에 있어 실험과 행동주의 단계 [19]와 비교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참여자들은 단순한 업무처리에서 벗어나 의료인으로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자신을 둘러싼 상황을 한 측면이 아닌 전체로 인식하면서 학교 사회에서도 단순히 끼이는 구성원이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구성원으로서 완전한 소속감을 가지려고 하였다. 나아가 이 단계의 참여자들은 활발한 전문직 단체 활동을 통해 보건교사의 역할 확립과 지위 향상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이 단계의 역할적응은 이전 단계들과 달리 질적으로 도약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참여자들이 주로 구사하는 전략은 내편 만들기과 능력 발휘하기로서 이는 수간호사의 전략[18]인 주도권 잡기, 몰입하기, 자리 잡기, 신규 간호사의 전략[14]인 자리 잡기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학교간호 실무모델에는 학교간호사 역할이 3단계로 제시된 바 있는데, 이중 마지막 단계는 정책분석가 역할이다[20]. 이 모델은 미국 학교간호사와 우리 보건교사의 여러 상황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원숙기에 있는 보건교사가 학교보건을 위한 정책제안자이나 분석가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함을 알려 주고 있다. 보건교사의 정책분석가로서의 역할은 학교보건이나 학생 건강에 대한 정책뿐만 아니라, 학교사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 수준을 정확히 사정하고[21], 이에 근거하여 이들의 건강권을 대변하며, 필요한 보건정책을 제안하는 지역사회 보건전문가로서의 적극적인 활동을 포함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볼 때, 초등학교 보건교사의 역할적응 과정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구체적인 직무연수와 함께 선배 교사로부터의 안내가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보건교사가 처한 상황과 역할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교과운영 및 학교문화를 알려줄 수 있는 교내 멘토와 전문적 업무를 안내해 줄 수 있는 보건교사 멘토를 함께 지정하는 것이 이들의 역할적응을 효과적으로 돕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체계적 지원 시스템 관리를 위해서는 보건 장학사 인력을 배치하되, 각급 학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초등담당 보건 장학사를 별도로 배치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초등학교 보건교사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들의 역할적응 과정에 대한 근거이론을 구축하였

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또, 보건교사의 역할수행에 있어 혼란과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내재적, 외재적 상황에 관한 연구, 이들이 역할적응을 위해 사용하는 전략들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그리고 역할적응의 결과에 이르는 과정에서 작용하는 중재의 효과 등에 관한 연구의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초등학교 보건교사가 역할적응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이들의 진술을 통해 밝힘으로써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유용한 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결론

본 연구는 근거이론 방법론과 초점집단 면접을 적용, 초등학교 보건교사의 역할적응 과정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참여자에 있어 보건교사로서의 역할수행에 있어 혼란과 방향은 역할에 대한 불명확한 신념과 비지지적 직무환경에 영향을 받았다. 참여자의 역할적응에 영향을 주는 중재적 상황은 보건교사로서의 자부심과 사회적 인정 및 지지였다. 핵심범주인 자기자리 만들어 가기는 초등학교 보건교사로서 역할적응을 위한 상호작용 전략으로서 그 결과는 자기자리 굳힘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의 역할적응은 진입기, 성장기, 원숙기의 단계로 진행되었으며, 보건교사로서의 경력이 이러한 단계적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

결론적으로 초등학교 보건교사의 역할적응 과정은 보건교사 스스로 자신의 자리를 찾아내어 만들어가면서 강화시키고 굳혀 가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초등학교 보건교사들은 특히 진입기에 생소한 업무를 시행착오를 통해 홀로 익히면서 낯선 학교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 이 시기에 이들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함을 알려주고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초등학교 보건교사의 역할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초등학교 보건교사의 역할적응 과정에서 도출된 범주들을 주요변수로 삼아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1. Kwon SJ, Kim NH, Kim YH, Park NH, Yang M, Lee KH, et al. School health. Paju: Soomoonsa; 2010.
2. Kim MH. A study of the relation between self-concept of profession and duty satisfaction of school health nurse [master's thesis]. Seoul: Kyung Hee University; 2000.
3. Ministry of Education. Job training guide: An expectant of new regulation appointment [Internet]. Seoul: Author; 2013 [cited 2014 March 28]. Available from: <http://www.mest.go.kr/newsearch/search.jsp>.

4. Lee JH, Lee BS. Self role perception of health teachers in elementary school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010;21(4):398-408. <http://dx.doi.org/10.12799/jkachn.2010.21.4.398>
5. Libbus MK, Bullock LFC, Brooks C, Igoe J, Beetem N, Cole M. School nurses: Voices from the health room. *Journal of School Health*. 2003; 73(8):322-324. <http://dx.doi.org/10.1111/j.1746-1561.2003.tb06590.x>
6. Park JZ, Jung MS. A study of school nursing activity performed by school nurses and teachers holding additional school health.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1995;9(1):17-32.
7. Jung GS, Ahn SH, Chung ES. Role expectation and role performance for school health educator as elementary school students recognize.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2003;16(2):125-134.
8. Stern PN. Grounded theory methodology: Its uses and processes. *Image*. 1980;12(1):20-23. <http://dx.doi.org/10.1111/j.1547-5069.1980.tb01455.x>
9. Morgan DL. Focus groups as qualitative research. 2nd ed. Kim S, Oh SE, Eun Y, Son HM, Yi M, translator.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 Inc.; 1997.
10. Burden PR. Implications of teacher career development: New roles for teachers, administrators and professors. *Action in Teacher Education*. 1982;4(3-4):21-26. <http://dx.doi.org/10.1080/01626620.1982.10519117>
11. Unruh A, Turner HE. Supervision for change and innovation. Boston, MA: Houghton Mifflin; 1970.
12. Strauss A, Corbin J.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2nd ed. London, UK: Sage Publications, Inc.; 1998.
13. Sandelowski M. The problem of rigor in qualitative research. *ANS Advances in Nursing Science*. 1986;8(3):27-37.
14. Son HM, Koh MH, Kim CM, Moon JH. The clinical experiences of adaptation as a new nursing staff.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01;31(6):988-997.
15. Kim KK, Yun B, Jeon MS. The effects of school health teachers' self-efficacy on job satisfaction.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2011;9(2):22-42.
16. Park YS, Lee HK, Hong HM. Job-satisfaction of school health (yang ho) teachers in Korea.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chool Health Education*. 2000;1(2):17-27.
17. Benner P. From novice to expert, excellence and power in clinical nursing practice. Menlo Park, CA: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1984.
18. Kang SY. The role adaptation process in head nurses [dissertation].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3.
19. Huberman M. The lives of teachers. New York, NY: Teachers College Press; 1993.
20. Keller T, Ryberg JW. A differentiated practice model for school nursing. *The Journal of School Nursing*. 2004;20(5):249-256.
21. Kim SH, Jo MW, Lee SI.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Korean Short Form-36 Health Survey Version 2 for Assessing the General Population. *Asian Nursing Research*. 2013;7(2):61-66.